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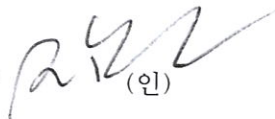
## 제307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제484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2. 제2021-4호 2021년 봄 편성 개편안 3. 제2021-5호 2021년 3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사장 김명중		
일시 및 장소	2021. 3 18.(목) 16:07 ~ 18:06, 18층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9명	결석 인원	없음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김양은 이사, 김진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이사		
회의 결과	1. 제484호 : 공개, 원안 의결 2. 제2021-4호 : 공개, 청취 접수 3. 제2021-5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21년 4월 15 일

이사장 유 시 춘

(인) 

이 사 김 양 은

(인) 

이 사 김 진

(인) 

이 사 문 종 대

(인) 

이 사 박 강 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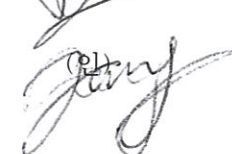
이 사 선 동 규

(인) 

이 사 이 영 한

(인) 

이 사 장 옥 님

(인) 

이 사 정 동 섭

(인) 

제 307 회

# 이 사 회

- ◆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16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회 순
-----

I . 개회 .....	1
II . 인사 .....	2
III . 전차 의사록 확인 .....	4
IV . 상정안건 .....	5
< 의결안건 >	
제484호 :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	6
< 보고안건 >	
제2021-4호 : 2021년도 봄 편성 개편안 .....	10
제2021-5호 : 2021년 3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34
V . 폐회 .....	40

(開會 : 16時 07分)

## I . 開 會

○ 議長 유시춘

사무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종풍 위원장, 김무성 사무처장, 김경민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입니다.

○ 議長 유시춘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0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議事棒 三打 ))

## II. 人 事

### ○ 議長 유시춘

그간 안녕하십니까.

일제히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EBS도 연일 계속되는 온라인클래스 관련 기사로 언론의 노출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본부에 비상상황실과 원서동에 기술상황실을 두고 제가 알기로 개학 이후 지금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만 서비스가 안정되지 못해서 이러저러한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또 내부도 그에 대응하느라 굉장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진들도 마음을 줄이면서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사회 직전에 집행부에서 현황 보고를 자세히 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술력의 한계라든가 법적, 제도적 미비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런 여러 디테일한 사정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현실의 가혹성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다 더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사용자가, 특히 온라인클래스에 있는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접속하여 이 시대 최대 화두인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집행부와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EBS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작은 불편함에도 그것이 더 크게 확대되어 보도되는 그런 속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EBS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지금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중 사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 社長 김명중

안녕하십니까.

새봄이 왔음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학을 맞은 우리 학생들은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BS는 교육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자 수백만 명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개학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불편을 드렸습니다. 수십만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화상수업 시스템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담은 한층 고도화된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저희 EBS에 있음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완벽한 온라인클래스 서비스를 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도 마다하지 않는 EBS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모의 테스트, 서버 증설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시스템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후 학교의 활용 패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안정적인 온라인클래스 운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제484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2021년 봄 편성 개편안」 및 「3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보임된 남선숙 방송제작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放送製作本部長 남선숙

안녕하세요. 신임 방송제작본부장 남선숙입니다.

온클이 열리면서 회사가 비상상황인 채로 제가 방송제작본부에 들어오게 됐는데, 3월 29일로 개편을 맞이하는 또 한 차례의 지상파와의 여러 채널들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야 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만족감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社長 김명중

오늘도 이사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Ⅲ. 前次 議事錄 確認

○ 議長 유시춘

그럼 전차 의사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개최된 제306회 정기이사회 의사록에 대해 이의나 수정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메일로 송부해 드린 정기이사회 의사록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理事들 있음 ]

예. 그러면 동의해 주신 대로 제306회 이사회 의사록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IV. 上程案件

○ 議長 유시춘

회의 공개 여부 역시 이사회 회의 공개에 대한 규칙대로 오늘의 안건 3건을 모두 공개리에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 〈 議決案件 〉

### 【 第484號：職制規程 一部 改正案 】

#### ○ 議長 유시춘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을 상정합니다.

#### (( 議事棒 三打 ))

정책기획센터장, 보고해 주십시오.

####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의결번호 제484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전에 이 직제규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임시이사회에서 직제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건부 의결을 해 주신 사항과 연관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 학습콘텐츠 협력제작부와 에듀테크부 승격을 하면서 당시 직제규정 <별표1>에 기재되었던 정원표상의 기존 규정들이 부장급, 일반직급까지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직제규정은 집행부에서는 상위조직, 부서장급 상위조직들을 규정한다고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존 규정 자체가 하위조직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직제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때 김진 이사님과 여러 이사님께서 ‘단순히 정원표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만일 이 <별표>를 수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향후 직제규정을 다룰 때 상위 부서조직에만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이 타 공공기관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 부분까지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이사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김진 이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타 공공기관들의 사례 등을 포함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타 공공기관 역시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사회에서 상위조직 개편 사항을 의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30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타 공공기관과 준하는 그런 결정으로 해석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 이사님과 사전 자문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임시이사회 결정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부분인데, 이 과정 속에서 김진 이사님께서 저희의 직제규정 자체가 기존에 이미 폐기된 조직이나 직제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문구와 더불어서 혼란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이번 이

사회의 안전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6을 봐주시면, 왼쪽에 현행 규정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입니다.

제6조(상임이사)의 경우는 저희가 2003년에 이 상임이사 제도 자체가 아예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자 하였고요.

이런 6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7조의2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이 제6조와 7조로 단지 숫자만 바뀌게 된 것입니다.

(p)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7을 보시면 좌측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직제와 정원 총수는 직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원관리규정이라는 별도의 규정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9조의 ③항을 보시면 ‘직무별 명칭 및 정원은 직무별 전문성 및 직무량을 고려하여 정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해서 이 정원관리 중에 일반적인 세부사항이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다는 그런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8조 ③항으로 이동시켜서 ‘일반직 정원의 세부적인 사항과 정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 위임규정의 문구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9조에 ‘직명 및 직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직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EBS 내에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직명이라는 한정된 용어로 표시가 돼 있어서 아예 직명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규정 9조 ④항과 ⑤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직급에 관한 규정으로 제9조를 명확하게 재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조의 ②항, ③항 현행규정 역시 '16년에 삭제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아예 번호를 삭제하고 ④항, ⑤항, ⑥항에 있는 번호들을 위로 올려서 ②항, ③항, ④항으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p)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규정입니다.

전문조직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정관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p)9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p)9 한국교육방송공사정관 제28조(업무)에 보면, 부대 사업에 대한 조항이 6호가 아닌 7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7년에 4호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새롭게 삽입되었는데,

이때 정관 개정과 더불어서 이에 맞는 직제규정이 수정되었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규정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p)8로 다시 돌아가시면 12조에 정관 제28조제1항제6호를 정관 제28조제1항제7호로 바꾸어서 현재 정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제14조, 15조 역시 현재 쓰이지 않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조항 역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과 맞지 않거나 과거에 정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엔 재정비해서 직제규정안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의견 주십시오.

○ 理事 김진

본부장님 설명하신 것에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면, 아까 ‘다른 공공기관 수준과 같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송 부장님한테 부탁해서 여러 기관들의 정관의 직제규정상의 조항들을 쭉 받아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전부 다 직제규정에서 정한 데들이 있고, 또 절반 정도는, 그래서 ‘어디가 더 많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저도 알아보니까 다 기관마다 다른데, 그래서 어디가 많아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별표1>에서 소부단위 일반직 정원, 직급별 정원을 더 이상 직제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경영진에게 정하게 한 것은 ‘다른 기관의 수준에 맞춰서’가 주된 이유는 아니고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죄송합니다.

○ 理事 김진

경영진의 인사운영에 조금 더 융통성과 효율성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의결한 것처럼 경영진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수월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유시춘

또 의견 주십시오.

[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

○議長 유시춘

우리 김진 이사님께서 워낙 정부 산하의 직제, 노사 이런 쪽의 일도 많이 하시고 밝으셔서요, 안내해 주신 대로 이렇게 수용을 하면 무리가 없을 듯싶은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이사분들 말씀 주십시오.

[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

더 말씀이 없으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들었고요, 원안대로 의결해도 될까요?

[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예. 그러면 의결안건 제484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 報告案件 〉

### 【 第2021-4號 : 2021年度 봄 編成 改編案 】

#### ○ 議長 유시춘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호 「2021년도 봄 편성 개편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 (( 議事棒 三打 ))

콘텐츠기획센터장,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2021년 봄 EBS 개편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그래프라든가 색깔 있는 게 많아서 따로 자료를 컬러로 인쇄해서 옆에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EBS 가을 편성 성과 분석, 그리고 2021년 EBS 봄 개편 목표 및 방향,  
개편 주요 세부 내용, 채널별 신규 프로그램, 그리고 참고자료로 2020년 주요 매체 현황 및 환경  
변화를 넣었는데, 여기에는 시청률 조사방식이라든가 주요매체 시청률 현황, 그리고 연령대별 미디  
어 이용 형태,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이 있습니다.

먼저, 2020년 가을 편성 성과 분석입니다.

2020년 가을 편성 전체 시간대 시청률은 '19년 가을 대비 10.4%, 0.48에서 0.53으로 약 10.4%, 그  
리고 봄 편성 대비는 약 15.2% 상승했습니다.

주 시청 시간대 가구 시청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인데, 평균은 '19년 가을 편성 대비 1.21에서 1.47로 약 21.5%가 상승했습니  
다.

시간은 평일에는 17.9%, 주말에는 28.3%로 주말 시청률이 더 상승을 하였습니다.

평일 주 시청 시간대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19시에서 21시 사이가 75%, 그다음에 82.1%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요 원인은, 2019년 가을 편성에서는 20시 30분까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었는  
데, '20년 봄 편성부터는 19시 50분까지만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하고 19시 50분 이후에는  
<극한직업> 스페셜이라든가 <다문화 고부열전>,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등 성인 프로그램을 편성  
한 것으로 인해서 시청률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1시에서 22시까지는 시청률이 약 8.4% 상승했는데, 이것은 <세계테마기행>하고 <한국기  
행>의 시청률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 시청 시간대 주말 시간대 분석입니다.

'19년 가을편성은 1.18에서 '20년 가을편성 1.51로 28%, 일요일은 1.59에서 2.03으로 27.7%, 그래

서 총 약 28% 정도 시청률이 상승했는데, 주요한 요인은 2020년 봄 편성 6월 13일에 시행된 주말 주요 프로그램 편성 조정 효과가 가을까지 이어져서 쪽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p)6입니다.

프로그램별로 봤는데, 특히 저희 주요 프로그램인 <세계테마기행>과 <한국기행>의 시청률 추이입니다.

'19년 가을 편성 대비 '20년 봄 편성에서는 <세계테마기행> 8.5%, 한국기행 11% 상승을 했고요. 특히 주말에 한국기행 종합편은 66.7%, <세계테마기행>은 39.6%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행에 대한 대리만족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청층이 그동안 40대까지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이었는데, 30대라든가 20대 여자에서의 시청률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행>과 <테마기행>을 중심으로 시청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아어린이 4-9세 시청률입니다.

유아어린이 전체 시청률은 가을 편성 1.21에서 0.85로 약 29.8% 하락했습니다.

평일 7시에서 9시 40분까지 이때가 약 -41.7%, 그리고 평일 17시 20분에서 19시 30분은 -3.4%로 하락폭이 미미했고요. 주말에는 8시에서 10시 시간대도 1.51에서 0.67로 약 55.6% 시청률이 하락했습니다.

2019년 가을 편성 대비 시청률 하락폭이 큰 평일 7시에서 9시와 주말 8시에 10시를 살펴보면, 평일 오전시간대에는 1TV의 시청률이 코로나19나 온라인 개학 등의 영향으로 2TV와 Plus2와 같은 타 채널의 시청률이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1TV와 2TV, 그다음에 Plus2를 '19년 가을편성 총합이 약 1.15%인데, 2020년에는 1.48%로 오히려 2TV와 P2의 4~9세 시청률을 합할 경우에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말 오전시간대에는 가을 편성 대비 한 55.6% 하락을 하였고, 봄 편성 대비에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여라 덩동댕> 등 전체적인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코로나 상황이라는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프로그램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p)9하고 (p)10은 저희가 2021년 한 주에 시간대별로 시청률 총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저희가 각 연령대별로 색깔을 구분했는데, '어느 연령대가 주요 TV 프로그램의 시청층인가?' 시간대별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50~60대 시청층이 굉장히 주력 시청층이고요.

(p)11 보시면 그것을 전체 2020년 연령대별 평균 시청자 구성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요채널은 지상파, 중편, TVN을 포함한 겁니다.

남녀 4-9세가 2%, 남녀 10대가 3%, 20대 4%, 30대 8%, 40대 16%, 그리고 50대와 60대 이상이 약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12 2021년 봄 개편 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가 환경 변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대전환, 그리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미디어 이용 행태의 다변화.

저희의 대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주관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인구구조 및 시청층 변화를 반영한 편성을 하겠다.' 그리고 '포스트 TV시대를 대비할 EBS형 슈퍼IP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EBS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콘텐츠 대혁신과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를 저희의 미션으로 설정했습니다.

(p)13 개편 주요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적 책무를 강화할 콘텐츠 개발입니다.

새로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EBS 부모>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육아, 교육, 가족 등에 대한 고품질 육아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문해력 부족 문제와 디지털 시대 '읽기'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제시하는 <특별기획-당신의 문해력> 6부작이 방송됩니다.

이것은 3월 8일부터 월화로 방송이 돼서 지금 4부까지 방송됐고 다음주에 5~6부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지 방송으로 끝내지 않고 연중 캠페인 <읽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는 SB 제작을 통해서 읽기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읽지 못하는 사람들>, <학교 속의 문맹자들>, <디지털 시대, 굳이 읽어야 하나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현재 4편이 방송이 됐는데, 1부 <읽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다시보기가 약 13만7천 건으로, 통상적으로 저희 <다큐프라임>이 방송되고 이 정도 시간이 흐를 때는 몇 천 건에서 많으면 한 1만 건 정도 다시보기가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성인의 문해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약 26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p)14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드라마 <보이지 않는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그래서 단톡방 왕따라든가 디지털 성폭력, SNS 중독 등 아이들의 디지털 세상을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커진 학습 격차와 불균형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큐멘터리 <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육의 길을 묻다>, 그리고 놀이 중심 유아 콘텐츠 <몬스터 언덕>을 신설했습니다.

이 <몬스터 언덕>에서는 신체운동이라든가 자연탐구,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등의 영역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감상과 공감능력이 풍부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콘텐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이용 가이드> 제작을 해서 온라인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인형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거나 피부색이 다른 이런 출연자들이 어울려서 함께 만들어가는 인형극 <행복한 거북이 학교>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p)15입니다.

핵심 시청층 공략 콘텐츠 개발입니다.

먼저 시니어 세대입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정보 전달 프로그램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가 신설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 생방송으로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건강, 취미, 학습, 주거, 경제, 요리 등 다양한 관심사를 다뤄서 5060 시청자와 소통하고 이들에게 사는 보람이라든가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과 재교육 등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로망대로 살아볼까>라는 파일럿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해서 <길을 찾아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영어하기 좋은 날> 이것은 국평원의 협찬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에 이쪽에서 ‘영어 중심보다는 금융문해, 정보문해, 건강문해, 교통안전문해 등 다른 것들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영어하기 좋은 날>이 아니라 <학교가기 좋은 날>로 타이틀을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시즌2와 3을 제작합니다.

바닷가 어부들의 삶을 담아낸 휴먼 다큐멘터리 <바닷가 사람들>과 코로나 시대에 대리만족을 제공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세계테마기행>을 10분 확대 편성합니다.

핵심 시청층 공략 콘텐츠 개발 유아어린이입니다.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를 이을 새로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생방송 방과 후 똘똘>이 신설됩니다.

똘똘은 EBS를 찾을 때 단어가 한글로는 ‘똘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이틀로 했고요, 어린이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꿈의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퀴즈라든가 또는 요일별 코너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똘똘한 체육시간>으로 어린이용 홈 트레이닝이라든가 재미있는 과학실험들을 통해 과학원리를 배워보는 <똘똘터지는 실험실>,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나 때는 그랬지> 또는 다양한 직업과, 아이들이 뉴스를 보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뉴스읽기>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수준별, 영역별 지식 콘텐츠 개발입니다.

세계사를 생생한 재연 드라마로 체험하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와 그리고 의료인, 법조인, 화가 등 다양한 직업인들의 활약상을 통해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사 놀이패 아리아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히어로 번개맨이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세계 문화유산을 훔치려는 이빨해적단과 대결해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 주는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그리고 과학 원리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 <사이언스 탐정>,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p)18 유아어린이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다양한 신규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아 타겟 집중에서 벗어나서 어린이 가족으로 시청층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과 같은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이 야호>를 이을 새로운 한글교육 프로그램 <한글이 쑥쑥>이 신설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글용사 아이야’로 타이틀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몽골, 베트남, 인도, 부탄, 미얀마 등 아시아 6개국 신화를 바탕으로 <비스트 오브 아시아> 6부작을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들의 생태계를 가미한 자연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결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큐멘터리 콘텐츠 혁신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변화를 조망하는 사회 통찰 다큐멘터리입니다.

올 1월에 6부작으로 방송됐었던 <포스트 코로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일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과 이로 인한 새로운 국가의 탄생 등을 다뤘습니다.

<도시예찬> 3부작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를 싫어하고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의 구성 원리 및 도시에서 삶의 본질들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Z세대 야생에서 세상을 품다>는 한국과 몽골의 소녀들을 다룹니다.

원래는 이게 3부작으로 계획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부작으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 관련 다큐멘터리 <아이>가 방송이 됩니다.

과학, 의학, 발달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을 둘러싼 최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성장에 대한 탐구 작품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고찰하는 EBS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46억년 지구에서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지금은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 다섯 번의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빙하기 도래 등 외부적인 것이었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여섯 번째 대멸종은 원인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멸종 현장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방향을 모색하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 5부작으로 방송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대나무 숲에 의지해 살아가는 생물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죽림> 2부작,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진행되는 제주바다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 <탐라국의 해저>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식물부터 곤충, 양서류, 파충류, 영장류의 성을 다룬 <연애기계>가 방송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기초 학문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혁신의 진정한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룬 <강제혁신>이 제작 중입니다.

여기의 주요 내용은,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기득권을 흔들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디어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권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든가 동아시아의 근대화 경험을 통해서 혁신과 권력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더 중요해진 번역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번역혁명> 3부작 방송되고요.

포스트 TV형 슈퍼IP 및 화제성 콘텐츠 개발입니다.

‘제2의 펭수’가 될 신규 IP를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펭TV>의 성공적인 제작 및 운영 경험 바탕으로 해서 신규 IP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MZ세대를 메인 타겟으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어른이,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입니다.

합친 말인데요, <딩동댕 대학교>와 <EBS 연예특강>은 현재 론칭을 했고, 그리고 인장선 씨의 <브이로그>가 제작 예정입니다.

(p)22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포맷을 실험할 수 있는 파일럿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편성에서는 목요일에 <파일럿 프로젝트> 편성시간을 확보로 해서 향후에 슈퍼IP가 될 수 있는 콘텐츠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콘텐츠기획프로젝트팀’에서는 MZ세대를 겨냥한 혁신 콘텐츠 개발과,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거나 가려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의미를 발견하는 비주얼 중심 쇼폼 ‘Never seen before’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안 수시 제안이라든가 공동개발 시스템을 수립해서 외주제작사의 우수한 기획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외주제작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탐사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약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신문 같은 경우 탐사보도팀을 운영

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서로 아이템이 맞으면 공동제작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p)23 EBS형 지식콘텐츠 구독 서비스 확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레이트 마인즈(Great Minds)>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라든가 베스트셀러 저자, 노벨상 수상자 등 최고의 석학들 출연을 추진 중입니다.

<오디오 어학당>, <클래스> 등 기존 EBS 구독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어학당>, <애니키즈>, <클래스>, <세상의 모든 기행>, <EBS 비즈니스 리뷰> 등 이런 부분들의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EBR 주니어 경제학>, <편의점 클래스> 등 기존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모델을 제시할 콘텐츠 제작입니다.

내용은 실감형 AR·VR 유아어린이 교육 콘텐츠 제작입니다.

그래서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인데요.

전래동화라든가 세계명작동화, 신화 등 스토리를 활용해서 무빙툰으로 제작하는 <창작동화 e스토리북>입니다.

그래서 동화 속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고, EBS 기존 캐릭터인 ‘봉구’와 ‘바바’를 활용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장애 유아 특집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25 채널별 신규 프로그램은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p)31을 보시면 연간 특집 중에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라스칼라 갈라 콘서트-별들을 다시 보려고>는 코로나 영향으로 무관중으로 진행했던 이탈리아 공연을 갖다가 갈라 콘서트를 저희가 수입해서 5월쯤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p)32 보시면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다큐프라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교육 타이틀이 <예술의 쓸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포기자들의 이야기라든가 지하철 공중위생 관리인들의 예술 도전기, 다양한 예술가들의 창작과정을 통해서 예술과 대중간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창사 특별기획 <교육 불평등 해소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교육 격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EBS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사 특집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집으로 <클래스-2021년 노벨상 해설 강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올해도 각 분야별로 어떤 업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

상했는지 전문가가 나와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 강의입니다.

(p)37 시청률 조사방식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률 조사방식은, 조사기관은 닐슨미디어코리아이고, 조사지역 패널은 16개 시도 약 4,170가구입니다.

(p)38을 보시면 전국 16개 시도에 약 4,170가구, 시청자수로는 약 1만2천 명 정도 규모의 패널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 패널은 방통위 및 통계청 기초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 패널로 선정이 되면 최대 4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패널 교체율은 약 25~30% 정도인데, 하루 평균 한 2~3가구 정도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p)39 보시면 연령대별 개인 패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2,000명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루에 2~3명씩 가구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받은 1월에서 3월까지의 기준은 11,169명이 개인 시청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시청률 1%의 의미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수가 2,034만 가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청률이 1% 나왔다 하는 것은 약 20만 가구가 시청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40 주요 매체별 시청률 현황입니다.

왼쪽은 지상파를 한 것이고 오른쪽은 종편이라든가 이런 건데, 저희도 상승을 했지만 TV조선의 시청률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p)41 보시면 그것을 숫자로 나타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 가을 대비 10.3%, 2020년 봄 편성 대비 15.2% 상승을 했고, 그렇지만 SBS, JTBC, MBN은 2019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TV조선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는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채널 시청률 합계는 2019년 가을 편성 대비 2020년이 아마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 5.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p)43 연령별 미디어 이용행태 및 매체 이용 비율입니다.

이것은 2020년 기준으로 주5일 이상 사용 빈도를 물어본 건데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TV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용 퍼센트가 97.8%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래서 10대 같은 경우는 98.2%가 일주일에 5회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44는 매체별 이용 비율입니다.

주5일 이상 사용 비율입니다.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20년 90.2% 올라갔고, TV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75%였는데 2020년에는 77.1%로 약간 코로나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p)45는, 저희가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을 볼 때 ‘과연 TV를 얼마나 보고 스마트폰 활용해서 동영상 시청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5일 이상 사용하는 빈도수입니다.

TV 프로그램 시청 보면 ‘주5일 이상 TV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으로 한다’가 약 8.8%, 그런데 TV 프로그램 이외에 기타 동영상은 47.8%로 기타 동영상 시청이 많고, TV 프로그램은 약 8.8%가 주5회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빈도이고요, 빈도 중에 특이한 것은 (p)46을 보시면 시청 빈도가 1주일에 매일 하거나 1주일에 5~6일 한다는 게 전체는 8.8%인데, 10대와 20대는 약 16.3%, 17.7%로 타 연령 대비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대나 20대는 TV를 보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청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뒤에 한 것은, 2020년 스마트폰 및 PC를 이용해서 방송 프로그램 시청시간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에 것이 빈도수였다면 이것은 총 양입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8,044분인데 일평균으로 하면 4시간 46분입니다. 그중에 약 20%가 동영상을 시청하고, 동영상 시청 중에 9.2%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151분 27분이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PC로는 이것보다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장르별로는 오락이라든가 보도 이런 부분들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p)47입니다.

향후 인구 구조 변화 예상입니다.

먼저 2020년과 2019년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19년 사이에 0에서 4~9세는 약 257만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0에서 10대까지가 약 453만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신 50대와 60대가 거의 1천만 명 가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p)48에 있는 것은, 여기는 기준이 구성비가 0에서 14, 그다음에 15에서 64, 65세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통계청 자료인데 향후 추이입니다.

그래서 2037년 같은 경우는 0에서 14세가 전체 인구에서 9.7% 정도 차지할 것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31.4%를 차지한다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p)49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학령인구의 추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령인구 추이가 이런 식으로 1977년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참고자료로 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자료와 통계가 뒤섞여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예, 선동규 이사님.

○ 理事 선동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가을 편성 때보다 2020년 가을 편성 때가, 가을 편성을 했더니 시청률이 많이 올랐다.’ 반갑게 들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외주가 몇 %이고, EBS PD들이 직접 제작하는 자체 프로그램이며 어느 정도 비율로 나뉘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프로그램 개편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타이틀이 외국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특히 오늘 보니까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제목 타이틀이 외국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건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지, 기왕이면 우리말로 흡입력 있는 타이틀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률 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저조하죠.

이게 몇 년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사실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청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구 말씀을 드릴 때 2020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통계를 보면 2020년에는 유아어린이 시청률이 EBS가 한 2.9%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A채널이 8%, B채널이 한 4.2%, C채널이 7.3% 나왔습니다.

그랬던 시청률이 2010년 들어서는 저희가 약 0.8%, 이것은 연령대가 아니라 총 시청률입니다.

그다음에 A채널과 B채널, C채널이 8% 가까이 나오던 것들이 전부 다 0.7에서 0.6 정도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청층의 감소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손주를 봐주고 있는 모양인데 ‘아침에 EBS를 틀었는데 전에 보던 것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다. 프로그램이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편성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제작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요즘 저기에 소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어린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理事 선동규

그러니까 센터장님, 잠깐만요.

아까 몇 페이지더라, 어디를 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을 저녁시간대에 빨리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니까 시청률이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전체 시청률은 늘었습니다.

○ 理事 선동규

전체 시청률에 그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 理事 선동규

그러니까 듣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청률이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조금, 대폭 줄여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오후에 하는 1시간 40분짜리 생방송을 하는 게 그겁니다.

원래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 오후 2시 몇 분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4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늦추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제 계시는 시청자들, 아까 시간대별로 보셨다시피 실제로 50대~60대가 많거든요. 4~9세는 별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행을 이번에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대를 축소하고 성인 시간대를 늘렸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 社長 김명중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p)8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인구구조 변화 이것은 떠나서 EBS 1TV의 시청률이 1TV, 2TV, Plus, 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EBS Kids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EBS 1TV가 1.15에서 0.67로 늘었는데 2TV는 0.01에서 0.47로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퍼센트를 합하면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1, 2, Plus, 또 Kids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굉장히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런 고민을, 채널 정책을 고민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 理事 선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죽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타이틀을 만드셨을 것으로 믿는데, 그 타이틀을 외국어 좀 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주하고 자체제작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이번에 외주제작 비율은 2020년 가을에는 약 30.6%였는데 이번에는 늘어서 33.6%가 외주제작 비율입니다.

방통위 고시에는 16%인데, 저희는 항상 약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봄 개편에는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 理事 선동규

그러니까 외주제작 비율이 법적으로 ‘몇 % 편성을 해라.’ 하는 게 있죠.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체 EBS PD들의 제작력 향상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훈련 차원이라면 표현이 좀 이상하고 자체제작도 조금 비율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영한 이사님.

○ 理事 이영한



오늘 우리 본부장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먼저, 기대가 됩니다.

## 《 박강호 理事 退室 》

우선 여기 44쪽의 내용을 보시면 매체별로 주5일 이상 사용 비율이 나오죠.  
44쪽에 이것을 보면 TV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 보면 주5일 이상 보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81명이 봤는데, 2020년에 보면 77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0.45%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TV시장이 그래도 탄탄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우리 EBS 자체에서 여러 가지 시청률 분석을 해서 내놓으셨는데, 일단은 이 분석을 조금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6쪽에 보시면 <세계테마기행>이 주중에 하는 것이 있고 일요일에 종합편이 있는데 그 배율이 한 4배~5배 정도 높아요.  
그게 높은 이유가 과연 뭐냐?  
제가 보기에는 시간수가 평일은 짧고 주말은 기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석을 명확히 해야 이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한테 좋은 의미가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실효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그 원인 분석이 되잖아요. 결과만 있기 때문에 원인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세대별 시청자수 구성비는 여기서 보니까 TV가 세대별로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청년층까지가 한 17%, 그런데 나머지가 83% 이렇게 돼요. 세대별로 큰 격차가 있는데, 이것이 EBS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TV가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EBS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이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의미 있는 우리의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社長 김명중

1차적인 자료는 저희가 낚슨에서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자료의 depth가 달라질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EBS의 것을, 사실은 여기 발표를 안 해 드려서 그렇지, 분석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저희가 방통위라든가 닐슨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 社長 김명중

예. 그 자료 가지고 우리 시청자도 다 분석이 돼 있죠? 여기 통계에 제시가 안 돼서 그렇죠.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 社長 김명중

혹시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EBS 것을, 따로 EBS 시청자 분석을 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理事 이영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사회에 이런 것 시청률 데이터가 온다는 자체가 의미가 커요. 크고, 이것 매우 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 어떻게 반영돼서 프로그램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근거자료로 생각됩니다.

○ 社長 김명중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닐슨에서 어디까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세요.

○ 理事 장옥님

봄 개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금 보고 들으니까 상당히 대폭으로 개편한 것 맞죠?

대폭 개편인 것 같고, 물론 봄 개편의 목표하고 방향 이런 것도 잘 설정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은 느낌은,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굉장히 희망적이라랄까, 기대가 돼요.

프로그램 개개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과학, 예술, 또 우리 사회, 환경 이런 모든 것을 다루고 있고, 또 프로그램의 짧은 소개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가 들고, 시청자와 소통하려는 의지도 읽히고, 전반적으로 이 봄 개편에서 굉장히 활기가 느껴져서 제가 ‘정말 아주 고생하셨다.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

고 싶어요.

그래서 봄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2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렇게 크게 대폭의 개편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또 이 봄 개편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홍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지, 3월 29일자로 개편이니까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홍보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보고서 뒷면에 보면 시청자 행태조사 같은 것을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TV 선호, 그러니까 매체 선호도와 TV, 그다음에 10대, 20대의 스마트폰, 주로 그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세대 간에 미디어 이용 매체가 정말 많이 다르고 거의 양분화 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EBS가 50대, 60대 중장년층의 시청률이 높은 편이고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에서는 많이 약하다는 얘기를 그동안도 많이 해 왔는데, 이쯤 되면 그 어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물론 ‘포스트 TV형 슈퍼IP 콘텐츠 개발’ 이런 워딩도 나오긴 했는데,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세계테마기행>이라든가 <다큐프라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와이드한 화면에서 보기에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에요. <세계테마기행>, <다큐프라임> 같은 것 굉장히 해상도도 좋고 화질이 좋은 그런 와이드한 화면에서 봐야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좋게 느껴지는 프로그램들인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시간의 길이를 짧게 편집한다든가, 어차피 우리 지식채널e 같은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경험이 있잖아요, 제작 경험.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콘텐츠 혁신인데, 말은 혁신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 계획하고 포스트 TV형 슈퍼IP 콘텐츠 개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일단 홍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예전에는 사실 개편이 있으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기자간담회를 해도 실제로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위 프로그램의 신규 프로그램 홍보가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3월 29일 개편이지만 사실 3월 29일에 다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각각 방송 일정이 제작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5주 뒤 이렇게 나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SNS라든가 홍보부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는 아예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콘텐츠 이 부분도 지금 사실 MZ 세대를 위해서 팽수팀과 미래콘텐츠기획팀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제작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스마트폰으로 최적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저도 지금 장옥님 이사님이 제기한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장을 한 건데요.

(p)11의 시청률 현황을 보면, 4세에서 29세 이하는 통틀어서, 합쳐서 9%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67%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장옥님 이사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폰 세대를 겨냥한 최적화된 콘텐츠의 신규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유아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저하하는 요인은 제가 명백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아이를 키울 때는 EBS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유아 프로그램 시청대에 네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의 변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콘텐츠의 품격이나 내용이나 완성도 이런 것을 떠나서 시청률의 제고라는 관점 하나에서 보자면 솔루션은 금방 나옵니다.

지금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신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콘텐츠의 신규 개발’, 애들이 수상기를 보지 않고 전부 이것을 모바일로 보고 있던 말이죠.

이미 뉴스의 시청률도 3년 전에 개인 퍼스널 컴퓨터보다 모바일이 능가했습니다, 2017년에 이미. 종이신문의 미래가 저는 향후 10년간 갈 것인가, 참 의문스러운데요.

그래서 TV보다는 모바일을 더 친화적으로 느끼는 세대를 향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50대 이상은 총 합하면 67%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될 추세라는 게 여러 통계자료나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 59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의 맨 후반기에 있는, 학교로 치면 78학번이죠. 그 세대가, 제가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59년생 78학번이 된 수험생수가, 그때 학력고사를 본 수가 80만 명이었어요.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거의 100만 명에 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최대인구가 높았을 때거든요. 학령인구가.

그런데 지금 2020년 신생아가 30만 명 미만입니다.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4세에서 29세 이하를 통 합하면 9%인데 이것은 점점 줄어질 확률이 높고요.

50대 미만, 그 59년생들이 지금 62세가 돼서 한 달에 50만 명 이상씩 Retire된 인구가 쏟아져 나

읍니다.

이 통계가 말해 주듯이 학력고사를 80만 명 이상 봤던 그 인구층들이 지금 전부 Retire돼서 가장 많이 TV 앞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제가 전제조건을 붙였습니다만 시청률의 제고라는, 그리고 EBS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지적인 개발에 유용하고요, 위안이나 오락 프로그램 보다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50세 이상이 점점점점 더 증대하는 이런 인구변화의 추이에 맞추어서 시청률의 제고 관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고, 또 29세 미만들이 보는 프로그램들은 TV를 떠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EBS 안에서 보자면 매우 큰 거대담론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어떤 단위가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률 추이를 보면 저의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TV 시청을 많이 하는 주 계층을 향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29세 미만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발상의 대전환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부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분들이 TV를 시청하는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분들이 또 과거에 고착된 생각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소임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 副社長 김유열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선동규 이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유아어린이의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유아어린이 감소가 되고, 또 유아어린이 이용 패턴이 유튜브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 전반적인 것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EBS 1TV에서 유아어린이 편성정책을 향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 큰 숙제이고요. 이번 개편을 보면 유아어린이 편성비율을 역대 최저비율로 편성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해 봐요 생방송 오후 1시> 70분짜리 데일리 생방송은 EBS에서 처음으로 시도 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장님 특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요.

일단 보면 BBC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 BBC1이 있고 BBC2가 있고 디지털 채널이 생기면 서 CB비즈, CBBC 이렇게 생기고, MMS 채널입니다.

저희들로 보면 EBS2가 MMS 채널입니다.

아까 EBS2가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지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BBC는 EBS2에서 유아어린이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스쿨 프로그램을 편성했던 적이 있어요.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CB비즈하고 CBBC가 유아어린이하고 어린이 채널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MMS 채널

널, EBS 2TV 같은 것으로.

하면서 지금 BBC2에는 에듀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2TV가 법제화가 되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또 2TV의 시청률이 0.5대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유아어린이의 광고정책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유아어린이는 또 공익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수신료 문제가 해결되면서 1TV는 마치 BBC2와 같은 편성정책을 가져가고, EBS2는 지금 있는 유아어린이 그 부분을 CB비즈나 CBBC처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아마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한 번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말 제가 보기에든 근 한 2~3년 내의 가장 큰 대폭 개편을 했고, 유아어린이 18년 동안 지켜지던 <보나하니>도 폐지를 하고 전면 혁신을 하겠다 라는 제작의 의지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70분 생방송을 낮 시간대에 데일리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편성에서는 굉장히 야심찬 편성을 갖고 도전적으로 해 온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EBS가 어떤 것을 편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지금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사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기는 했습니다. 현재 두기는 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여기에 표현이 잘 안 됐습니다만 <그레이트 마인즈>라고 지식 넷플릭스 그 부분이 아마 후반기부터는, 여기는 전반기 편성이 아니라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데일리 편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것은 모바일이 글로벌로도 유통이 되고 국내에도 모바일이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인터넷 플랫폼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지금 확정이 돼서 아마 오늘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잘 표현은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EBS로서는 근 한 10년 동안 가장 도전적인 프로그램 혁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마 후반기에는 이것보다 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국민들이 맛보고, 또 이것을 글로벌까지 진출하는, 그래서 지금 가칭 <그레이트 마인즈>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세계 석학들 섭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바뀌어서 기대도 되고, 또 한편 안정화될 시기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議長 유시춘

지금은 너무 화급한 사안이 온라인클래스를 성공시켜야 되고, 거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야말로 화급한 초미의 과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이고요, 해결 내지는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고요.

지금 저나 선동규 이사님이나 장옥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집중적으로 고민을 공유하고 혁신해야 될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종대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문종대

성과분석 통해서 편성,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기본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할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편성을 통해서 시청률이 높아지는 효과들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주로 <세계테마기행>이나 <한국기행> 이런 것들이어서 이번에 새로 제작된 프로그램들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률이 좀 더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TV에 가장 적합한 타겟이 어디냐?'

저는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EBS가 갖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20대, 30대, 40대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EBS가 제공하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여기는 전문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다른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이지, EBS가 제공하는 어떤 하나의 전문성 정도를 요구하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50대가 넘어서면 이제 전문성보다 삶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와 닿고, 그다음에 눈도 나빠지고 하니까 오히려 TV가 60대 이상은 가장 최적화된 미디어입니다. 스마트폰 보다.

저는 '60대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큰 화면이 좋아서 오히려 거기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시장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뭐냐 하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근대적 문화유산에 대한 향수, 또는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미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EBS의 가장 타겟이 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강연 프로그램도 전문성보다는 인문학적인 강연들이 훨씬 더, 또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산업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50대 이상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이쪽 부분의 개발이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에서 다음에 이런, 50대 이상은 근대적 문화유산에 대한 향수가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탐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을 지을 수 없지만 누구나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도 시골 같은 데 집을 지어보고 싶다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집을 지을 수 없지만 대리만족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귀농귀촌 같은 것들도 '귀농귀촌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50대 이상들의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들도 보여주면 인구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50대 이상의, 또는 미래에 대한 것들, 미래도시 이런 것 한두 개 있기는 한데, 다음에 차후 경제를 주도해 갈 산업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은 사실 계속 말씀들을 하셨지만 어차피 출산율이 낮아져서 가구 시청률로 조사하면 이것은 무조건 낮아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모집 단위는 뭐가 돼야 되냐면, 사실 여기 10대 이하가 아마 400몇 명인가 조사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모집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어린이가 있는 집이 모집단이 돼서 거기의 퍼센티지를 내야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때 민족의식이나 많은 의식들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EBS가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다른 상업적 미디어가 제공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가치, 이런 부분들 어린이 때 많이 형성되는 거니까 저는 이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EBS이기 때문에. ‘다른 상업방송들은 재미를 통해서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더라도, EBS만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가치에 좀 더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의견이라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議長 유시춘

우리가 아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안을 간추려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정동섭 이사님.

○ 理事 정동섭

상대적으로 라디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라디오 FM 편성표를 보니까 야 사시이 일본어, 단오시 중국어, <이지라이팅>, <귀가 트이는 영어> 이것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저도 이것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건데, 이것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책도 따로 사야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그 당시 공부할 때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나요?

5시에 배치해 놓고 그때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냥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당연히 출혈을 하면서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적인 방송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호응이 좋은데, 제가 계속 10여 년 이상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건지, 그것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 副社長 김유열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을 오래 해서.

영어, 특히 이지 잉글리시부터는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ebs.co.kr에서 AOD 서비스, VOD 서비스를 하면 제일 이용률이 높은 게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ebs.co.kr 내에 그동안 했던 몇 만 개의 AOD가 있는데, 실용적 가치로는 어떻게 보면 TV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보다, 한때는 TV에서도 영어회화 같은 것을 편성했다가 시청률과 이용률이 떨어져서 라디오에만 하는데,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EBS 라디오에서 안 하면 실제로 공부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디오 공중파용이라기보다는 학습용 AOD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OD는 굉장히 꾸준히 ebs.co.kr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시간대에 청취율은 굉장히 낮고요, 청취율은 굉장히 높은 게 외국어 영어 중심으로 해서 청취율이 높은 편이고, 낮지만 이 시간대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처럼 체계적으로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에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리 말하면, TV 전체보다 라디오 외국어 콘텐츠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콘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 理事 장옥님

라디오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여쭙볼게요.

이 편성표 보니까, 사실 저는 <책을 읽는 라디오>인가, EBS 예전에 어떤 책과 관련된 콘텐츠가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아직도 지방 어디 EBS 폴사인 광고하는 것 보면 ‘<책을 읽는 라디오> EBS FM’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책을 읽는 라디오> 이것 폐기한 건가요? 음악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더 이상 이 편성으로는 책을 읽는 라디오는 아닌 것 같아서요.

####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요일에 있는 EBS 라디오 스페셜이 <세계명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라디오> 컨셉은 예전에 어학과 책을 읽는 2가지 축으로 갔는데, 그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또 다른 데서, 인터넷에서 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그런 구독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편성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 ○ 理事 장옥님

그러면 지방에, 어딘가에 가끔 눈에 띄는 채널광고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 副社長 김유열

한번 조사를 시켜서요, 저도 그 생각은 못 했는데요, 옛날에 <책 읽어주는 라디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해서 하루에 한 10시간씩 편성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관련 부서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다른 문구로 바꾸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김양은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김양은

저도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이사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그냥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선동규 이사님도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가능하면 저희 타이틀은 한글이 위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그레이트 마인즈(Great Minds)>도 가능하면 하고 부제로 ‘그레이트 마인즈’로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게, 요즘 한국의 문화라는 것들이 세계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오히려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한글의 노래가사들이 나오면 정말 그 표현을 영어로는 할 수 없다고 아쉬워 하면서 인터넷에서 글로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작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너무 공감은 하는데,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저희가 공을 들이는 만큼 고민하는 것도 EBS의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유아어린이 프로 중에서 아까 <똥똥> 같은 경우도 제가 EBS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유아어린이 프로라고 하면 굳이 영어를 한글로 해서 자판을 바꾸는 ‘똥똥’이라는 것을 표기로 썼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가능하면, 사실 이게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런 표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보면 또 소통을 막는 도구가 돼요, 세대 간의 언어적 표기의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저의 바람과 생각이구요.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저도 보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재미있기도 하고 제 수업에서 소개도 하고 있어요. <문해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재미있어서 보고 있고, 그 프로그램 안에 나오는 낱말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관점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기획하시고 애쓰셔서 일단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BS가 가지는 가치를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같아요.

정말로 저는, 지금 이사님들 다 말씀하시고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청률도 고민스럽고, 이용자

들이 미디어를 보는 패턴에 대해서도 고민스럽고, 이게 꼭 시청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 변화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청률에 대한 고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이 세대 변화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혹은 내지는 그래서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기본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문종대 이사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유아어린이 프로는 어디에서도 못 하고 있고 우리가 끝까지 쥐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아어린이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사실 유아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20~30대의 부모들이 함께 보호자가 같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책을 읽어준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책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과 책을 듣는 사람의 소통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EBS 유아와 어린이 프로가 갖고 가야 될 것은 세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는 것을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게 EBS의 어린이·유아 프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바뀔 얘기하면 어른들이 보시면서 ‘아, 내가 10년 전에 봤던 거랑 왜 EBS 유아 프로는 똑 같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왜 우리는 새롭지 않지?’라고 고민은 하셔야 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아, 우리는 계속 잘 연결하고 있구나.’라는 측면도 될 수 있다 라는 반대적 의견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EBS의 유아어린이 프로의 콘텐츠는 아이들에게 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약속을 알려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치를 알려주고, ‘어떻게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어떻게 하느냐?’는 채널 전략들과는 별개로 저는 EBS 프로그램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는 보수적으로, 꼭 사회가, 시대가 변해도 가치는 같이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꼭 남겨놔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변할 때마다 트렌드해지면 자꾸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PPT로 봤을 때는 ‘13’이라고 되어 있던데 <읽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슬로건 정해지신 것 아니면 이것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문해력 프로 진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문해력 프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루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룬다’라는 의미는 이 문해력 프로그램과 우리가 하고 있는 문해력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슬로건 같아서, 이것은 우리의 가치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문해력을 한번 봐주는 슬로건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반기에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들 많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제 전공이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드라마에 <보이지 않는 상담소> 같은 경우에 약간 부정적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 세대들의 눈에서 고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주 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 세대는 아니잖아요. 이 세대들이 어떤 패턴으로 놓고 있고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이 상담소에서 조금 더 녹여주시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 혹시나 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당부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제 고민인데요.

<EBS 부모> 이것 되게 좋은 가칭인데, ‘부모’라는 개념이 사실 고전적인 부모의 개념에서 나온 단어라서, 물론 방송에서 그렇게 푸시진 않고 저도 이것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라는 것의 고전적 개념을 깨트리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 프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어려운 숙제 같은데 그냥 한번 말씀드리 봅니다.

#### ○ 理事 문종대

제가 여기에 보완해서 조금만요.

김양은 이사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스마트 미디어가 갖지 않는 TV 미디어가 갖는 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TV는 어린아이와 부모가 같이 봐서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스마트 미디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각자 개인 미디어라서.

그래서 오히려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정말 그 부모와 어린이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책을 읽어주는 엄마와 똑같은 거죠. 책을 읽으면서 아이와 이야기해 것, 정말 좋은 포인트 같고요. 그다음에 <EBS 부모> 이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0대, 40대가 전부 다 맞벌이하는데 편성전략은 뭔지, 이게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 ○ 議長 유시춘

답변을 들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고민의 여러 지점들을 다양하게 개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 質疑하는 理事 없음 ]

그럼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1-4호 「2021년도 봄 편성 개편안」 을 원안대로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議事棒 三打 ))

## 【 第2021-5號 : 2021年度 3月 主要 業務 推進 實績 및 計劃 】

### ○ 議長 유시춘

다음 안건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021-5호 「2021년도 3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을 상정합니다.

(( 議事棒 三打 ))

정책기획센터장, 보고해 주십시오.

###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2021년 3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37입니다.

첫 번째, 외부 수상 소식입니다.

작년에 60세 이상 여성 세 분의 일정기간 동안 함께 살아가기를 통해서 시니어 여성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성 고민, 우정, 또 거기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 시니어 세대를 돌이켜 보게 했던 <다큐프라임-60세 미만 출입금지>가 토론토국제여성영화제 월간 베스트 여성 프로듀서 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마다 베스트 여성 프로듀서들을 선정을 하고, 이 월마다 선정된 프로듀서들 대상으로 연말에 자동으로 전체 대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스트 오브 아시아>, 아까 콘텐츠기획센터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직 방송은 나가지 않았지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2020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그중에 우수사업상을 수상했다 라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2번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EBS 부모>가 4월 2일 금요일 김일중, 이지애 아나운서와 전문가 패널 및 12명의 온라인 학부모단으로 패널 구성들을 해서 첫 방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AI펍톡이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AI펍톡 활용 설명회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3월 18일 목요일 날은 EBS 5층 스튜디오에서 AI펍톡에 대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해서 전국 초등학교 교사 및 영어교육 관계자들이 보다 AI펍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웹서비스 클라우드 도입 사업 및 패밀리 사이트 클라우드 전환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기존에 쓰고 있던 인터넷 사이트의 기존 시스템은 서버를 이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이 전환된 클라우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EBS 사이트들을 접목시키는 이 2가지 측면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에 클라우드 전환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클래스를 접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수 실제 테스트를 위해서 더 보강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계된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의 현재 목표로는 3월 말에는 저희 1차 테스트들을 진행하고요.

4월 역시도 본격적인 오픈을 미뤄서 4월에도 2차 테스트 및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학교 단위,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들을 엄밀하게 거쳐서 그 후에 본격적인 오픈은 4월 29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대폭 수정해서 테스트 강화를 통해서 안정성 있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5번 사항입니다.

방송재난 대비 송출 모의훈련 실시입니다.

저희가 원래 연마다 방송재난 대비 송출 모의훈련들을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방송국인 이상 어떤 비상상황이 되더라도 방송 송출이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주조에 송출하는 시스템들을 비상상황에는 지하1층에 구성되어 있는 비상구조 시스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차를 이용한 시스템, 이렇게 3단계로 지금 대비들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실제상황에 준해서 모의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등 전염병 상황들을 추가해서 현재 상황들에 맞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번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던 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고요.

7번 사항은 아까 편성 개편안에도 담겨져 있었던 2030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신규 IP 콘텐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론칭을 시작했습니다.

웹수업에서 제작을 맡은 것이고요, 현재 론칭된 프로그램은 <딩동댕 대학교>와 <연애 특강>으로 3월 2일과 3월 4일에 각 주 1회씩 해서 론칭이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들은 유튜브 베이스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웹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웹수의 성공 프로세스나 노하우들을 접목시켜서 제2의 웹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의견 주십시오.

○ 理事 문종대

혹시나 해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EBS 부모>에 또 엄마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엄마아빠 적절하게 균형 있게 등장하는 거죠?

부모교육의 패널들, 학부모단이 참가하는데 그 학부모가 거의 대부분 또 여성인 것 아니죠?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방송제작본부장님이. 예.

○ 放送製作本部長 남선숙

아까 말씀 주셨던 <EBS 부모> 타이틀에 대한 고민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저희들도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3월 29일이라, 하여튼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성 위주의 부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MC도 2MC로 아빠의 고충, 엄마의 고충,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MC로 배치를 했고, 전문가가 세 분 정도 나와서 아이들의 양육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고충, 공감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을 전할 예정이고, 특이할 만한 것은 12명의 시청자 패널을 저희들이 좀 강의하듯이 그렇게 띄워놓는 그런 것을 마련했는데, 의외로 제작팀도 깜짝 놀라게 ‘아버지들의 신청이 많았다. 그래서 1시간씩 이상의 인터뷰를 마쳐서 12명을 뽑았는데, 그중 세 분이 아버지로 뽑혔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려하시는 지점이 뭔지 아니까 같이 공유하고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理事 김양은

사소하지만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저희는 부모가 대상인 것이지 학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용어지만 ‘부모’와 ‘학부모’는 좀 다른 것이 있어서 EBS에서는 그것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 放送製作本部長 남선숙

알겠습니다.

○ 理事 김양은

하나, 이것은 저도 사소한 건데, 어제인가 뉴스 보도가 나서, 방송사들의 상표권과 관련된 뉴스 보도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도 모르겠는데 방송 프로그램들과 관련돼 있는 상표권이나 내지는 외주 갔을 때 외주 제작사들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잘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예, 또 의견 주십시오.

○理事 정동섭

4번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학교교육본부가 요즘 일도 되게 많은데 이 자체가 저는 클라우드 도입하고 전환하는 게 EBS 전체가 서버 기반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학교교육본부가 하고 있으며, 제가 내부를 정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강의나 이런 것만 클라우드로 하는 그런 건가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체 전환을 하는데 전체적인 작년 예산이고 올해도 예산 반영됐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방송국은 전부 전환을 끝낸 상황인지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학교교육본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예. 학교교육본부장, 방금 정 이사님 말씀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37 4번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웹서비스 클라우드 도입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클라우드 전환 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EBS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 클라우드에 얹어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 사업은 원래 온라인클래스라는 원격사업이 도입되기 이전인 2019년에 저희가 기획했고 이미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EBS가 그동안 서버 기반, 저희 전문용어로는 IDC 기반의 오프레미스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서버 기반인데 이게 여러 가지 노후화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이사님들께도 2019년에 보고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원격교육 상황이나 온라인클래스 상황이 발생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도 클라우드를 이미 다 옮겨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듀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 28일 날 완전히 기존 것을 셧다운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 두 달 정도를 더 유지해 가면서 혹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상태로 두 달을 미룬 상태입니다.

현재는 내일까지 개발은 100%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유시춘

또 말씀 있으실까요?

[ 質疑하는 理事 없음 ]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예. 그러면 보고안건 제2020-5호 「2021년 3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원안대로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 議事棒 三打 ))

(閉會：18時 06分)

V. 閉 會

○ 議長 유시춘

이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07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사회 때 다시 보고 오늘 이사회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事棒 三打 ))

수고하셨습니다.

[ 理事들 “수고하셨습니다.” ]

《散 會》